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자료적 고찰*

이 승 희**

1. 서론
2.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서지 사항
3. 조선 시대 한글 행장류
4.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구성과 내용의 특징
5.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국어사적 특징
6. 결론

1. 서론

본고에서는 최근 소개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서지 사항 및 구성과 내용의 특징, 국어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자료적 가치를 밝히 고자 한다. 조선 시대까지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데, 요즈음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이 바로 女性行狀類이다. 여성 행장류는 대부분 그 대상이 일부 사대부 가문의 여성이며, 내용 역시 주로 당대 여성에게 요구된 전형적인 ‘婦德’의 모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도 갖고 있지만, 각각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각 인물의 독특한 개성과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6월 국립한글박물관 강독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한 국립한글박물관과 토론 및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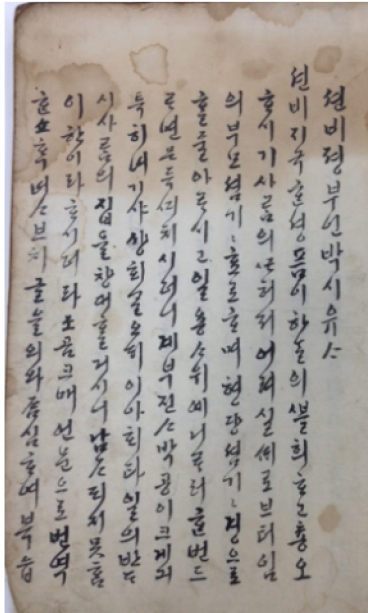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19세기 자료인 『선비정부인박시유스』는 다른 행장류와 비교할 때 일반적, 전형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독특하고 다양한 일화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어머니의 개성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자료는 한문본을 언해한 것의 필사본으로 한문본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언해의 주된 목적은 집안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언해본 『선비정부인박시유스』는 번역의 양상, 조선 후기 여성 교육 등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최초의 언해본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으나, 후기 근대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세기 국어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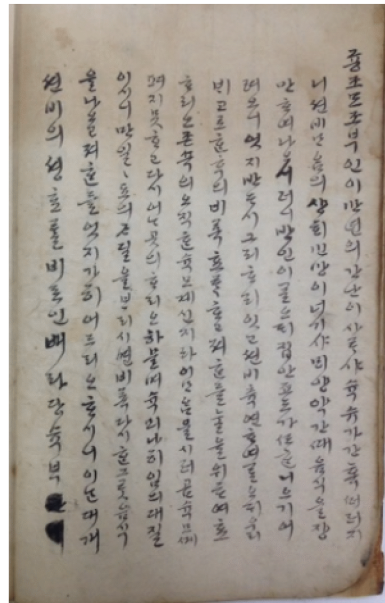
2.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서지 사항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인 『선비정부인박시유스』는 조선 후기 사대부 尹光濩(1753~1821)의 한문본 『先妣遺事』를 언해한 것의 필사본이다. 한문본 『先妣遺事』는 현재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윤광호의 『念齋雜稿』 6책 중 3책으로, 본문은 총 30장이고, 각 장은 10행 20자이다.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언해본은 표제가 '先妣遺事諺譯', 卷首題가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이며, 크기는 가로×세로 20.5×31cm, 본문은 총 55장, 각 장은 無邊無界에 10행이고,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 한문본 『先妣遺事』의 저술 시기는 권말에 '聖上二十四年庚申二月 日不肖男光濩 泣血謹書于鷄田笱廬'라 되어 있어서 윤광호가 모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정조 24년 경신년(1800) 2월에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언해된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윤광호가 『先妣遺事』를 저술한 동기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덕행을 기록하여 집안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밝혔으므로 아마도 언해 시기는 한문본 저술 시기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기나 음운, 문법상으로도 후기 근대국어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드러나 언해 시기가 19세기 전반일 것이란 추정을 뒷받침한다(국어사적 특징은 5장 참조). 다만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언해본 원본이 아니라 후대에 다시 필사한 것으로, 필체로

보아 최소한 3명 이상이 돌아가며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필사자와 필사 시기는 알 수 없다. 서로 다른 필사자들의 필체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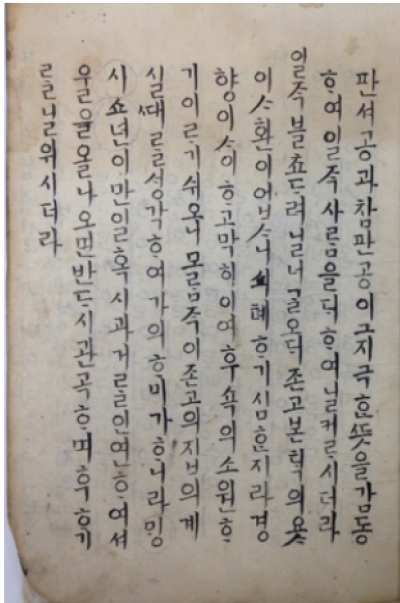


〈그림 1〉 필사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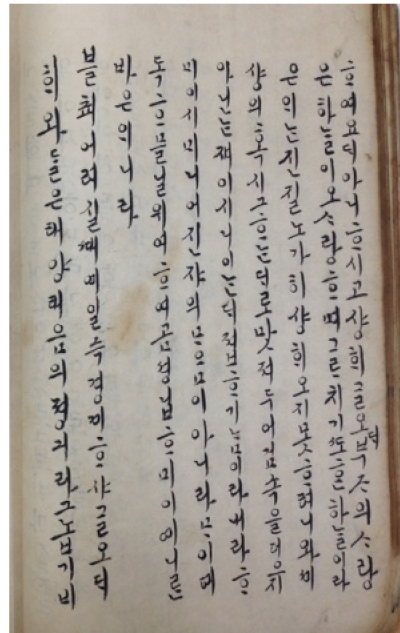


〈그림 2〉 필사자 1'

1) 두드러진 필체의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필자가 필체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1〉과 〈그림 2〉의 경우, 흘림의 차이일 뿐 같은 필체로 보인다는 의견과 서로 다른 필체로 파악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필사자 사이에 자형의 차이 외에 언어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필체가 동일한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적 현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보이므로 단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5장에 제시한 예시 중 (5ㄴ, ㄷ)에는 동일한 필사자가 ㅅ의 된소리를 ‘빨디업-’, ‘쓰름’과 같이 ㅂ으로 표기한 것과 ㅅ으로 표기한 것이 공존하며, (6ㄴ, ㄴ')에서도 필사자는 동일한데 ㄷ구개음화를 거친 ‘전(傳)’과 이전 형태인 ‘던(傳)’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필사자 2



〈그림 4〉 필사자 3

貞夫人 朴氏(1727~1799)는 참봉 朴趾衍의 딸로 태어나 尹東昇(1718~1773)과 결혼하여 아들 光濩를 낳았는데, 윤동승은 1746년 춘당대시에서 을과로 급제한 이후 수찬, 교리, 성균관 대사성, 충청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도승지, 대사성, 대사헌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²⁾ 아들인 윤광호는 1775년(영조 51) 음직으로 익위사세마가 되었고, 이후 서흥 현감, 대흥 군수, 전주 판관, 연안 부사, 보은 현감, 밀양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2) 윤동승(1718~177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坡平, 초명은 東星, 자는 幼文이다. 1746년(영조 22) 진사로 춘당대시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文翰官을 거쳐 1755년에 文學이 되고 이어 修撰·부교리·사헌부집의·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757년 암행어사로 강원도 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와 민폐의 시정과 흉년으로 인한 貢稅의 감면을 주청, 왕의 윤허를 받았다. 성균관대사성·廣州府尹을 역임하고 충청도관찰사로 승진하였는데, 國忌 중에 宴樂을 개최하다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이후 승지, 대사성·이조참의를 거쳐 1770년 전라도관찰사로 나가 大同米·大同布의 수송에 따른 漕船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칭송을 받았고, 도승지·대사성·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참조).

『先妣遺事』는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인품과 덕행을 기록하여 기리기 위해 쓴 글이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의 자질과 성품이 순수하고, 보고 얹이 고명하셔서 실천하심이 도에 들고 예사 말씀이 법을 이루시니 어찌 가히 가문에 전하여 자손들이 보게 하지 않을 것인가! (중략) 후에 내 집안에 들어와 내 집 며느리가 되는 사람은 오히려 또한 우리 어머니의 평일 언행을 마음에 간직하여 행해야 할 것이다”라고³⁾ 밝히고 있듯이 가문의 자손들, 특히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덕행을 알려 경계와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글에는 어머니의 어질고 뛰어난 성품,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 태도,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올바른 도리에 맞도록 엄히 가르치고, 높은 식견이 있으나 부인의 분수를 넘지 않고 女工과 婦德을 닦은 모습 등이 일상의 언행과 일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한문본을 언해한 『선비정부인박시유스』를 따로 펴낸 것은 집안 여인들에게 이 글을 널리 읽혀 돌아가신 어머니의 덕행을 본받게 하려는 교육적 목적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3. 조선시대 한글 행장류

한문 산문에서 亡者의 인품 및 생전의 덕행을 기록하여 기리고 후세에 전하는 글로는 傳, 行狀, 遺事, 言行錄, 墓誌銘, 碑文, 祭文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遺事’의 경우는 행장, 언행록 등과 함께 ‘行狀類’에 포함된다.⁴⁾ ‘行狀’은 망자의 가족이나 동료 등이 망자의 전기, 비문, 묘지명 등을 제작하는 데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망자의 家系, 관직 및 경력, 생전의 인품과 언행, 자손 등을 서술한 글인데, ‘遺事’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간략하게 망자의 인품과 덕행을 드러내는 일화 위

3) “吾先妣 姿性純粹 見識高明 實踐入道 雅言成範 烏可不傳之文字 爲子孫觀也. (중략) 後之入吾門而爲吾家婦者 尙亦服膺於吾先妣平日言行也.”

4) 이경하(2007)에서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일생을 기록한 “行狀, 行錄, 行實記, 遺事, 遺蹟 등”을 ‘亡室行狀類’로 통칭한 바 있다. 행장, 행록, 유사 등은 양식이나 구체적인 목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함께 묶일 만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 분류를 따랐다.

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성의 행장류와 여성의 행장류는 구성이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되는 관직이나 경력, 공적, 학문적 업적 등이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이나 유사 등의 수가 많지 않다가 17세기 이후로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이경하(2007:4)], 현전하는 여성의 행장류는 대부분 아들이나 남편이 ‘先妣’나 ‘亡室’의 婦德을 기록으로 남겨 길이 기억되도록 하는 한편 가문의 후손들이 본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술한 것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행장류가 대개 망자의 婦德을 드러내고 기리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행장류에 나타난 망자들의 생전 인품이나 덕행 등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록되어 전할 만한 ‘婦德’으로 인식되는 것이 시대적, 이념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필자들의 의식을 제한하는데다가 당대 사대부 여성들의 삶 역시 극히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각기 다른 일화나 사건을 기술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비슷해 보이게 되는 것이다.⁵⁾ 물론 이 ‘비슷함’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이경하(2007:3)에서는 행장류가 傳이나 묘지명에 비해 “망자의 일생을 구체적인 사건과 일화를 동원하여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보다 개별화된 망자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행장이나 유사 등은 전이나 묘지명을 위한 1차적 자료로서 비교적 ‘덜’ 공식적인 성격을 띠며, “망자의 일생을 구체적인 사건과 일화를 동원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삶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문본에 비해서는 수가 적지만 조선 시대 국문본 행장류도 전하고 있다. 국문본 행장이나 유사는 두 부류, 즉 애초에 국문으로 저술된 것과 한문본을 언해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국문으로 저술된 행장이나 유사는 그 예가 많지 않은데, 숙종의 계비인 인원왕후가 쓴 『선군유스』와 『선비유스』,⁶⁾ 18

5) 예를 들어, 여성 행장류에는 공통적으로 어려서부터 어질고 총명한 자질을 보였다거나 결혼 이후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섬기고 가난한 살림에도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집안일을 다스렸다는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6) 이 자료는 정하영(2006)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어진 행적을 알려 기리

세기 서일수의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숙인김시형록』 등이 전한다.⁷⁾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는 왕비가 국문으로 대행왕의 행장을 써서 공식 행장 저술에 참고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번 보이며,⁸⁾ 사대부 집안에서도 여성이 어머니의 유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⁹⁾ 따라서 당시에 한문으로 저술할 수 없거나 혹은 능력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이 국문으로 행장이나 유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적지 않았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문본을 언해한 행장과 유사는 여러 자료가 전하고 있다. 이른 시기의 자료로는 17세기 이경석이 저술한 인조(仁祖)의 행장을 효종이 언해했다고 알려진 『선도행장』이 있고,¹⁰⁾ 그 외에 충무공 이순신의 행장을 언해한 『통무공행장』, 인조 때 문신인 羅萬甲의 부인 정씨의 행장,¹¹⁾ 서포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의 행장인

기 위한 목적 외에 친정 가문의 후손들이 외척으로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도록 경계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군유스』와 『선비유스』의 내용을 보면 친정 부모의 일생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외척으로 궁에 출입하면서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삼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이 궁에 들어오면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하여 궁인들이 칭송하였다거나 딸에게도 군신의 예로 대하고 사사로운 정을 펴지 않은 것, 임금의 배려나 자신의 선물도 늘 사양하며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 7) 최강현(1996:209-226)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관계 및 내용을 통해 亡者는 충주목사를 지낸 徐日修의 아내 경주 김씨이고 저자는 윤홍과 결혼한 둘째 딸로 추정하였다.
- 8) 1495년에 성종비 정현왕후가 諺書를 내려 성종의 행장에 참고하게 하였다는 기사, 16세기 인종비 仁聖王后가 인종의 평소 성품 및 언행을 언문으로 기록하여 이를 인종 행장에 참고하였다는 기사, 17세기 인조반정 후 인목왕후가 아들 영창대군의 언문 행장을 직접 써서 내렸다는 기사, 숙종 대에 왕대비 明聖王后가 대행왕인 현종의 行錄을 언서로 작성하여 내렸다는 기사, 그리고 19세기 헌종 승하 후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가 선왕에 대해 내린 언교가 실록에 실려 있다. 이 밖에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와 혜경궁이 쓴 정조의 行錄과 순원왕후가 쓴 순조의 행록, 철종비 명순왕후가 쓴 철종의 행록이 실록에 실려 있는데, 이들도 본래 한글로 쓴 것을 한문으로 번역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諺文’이나 ‘諺書’로 써서 내렸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백두현(2004); 이경하(2005); 이승희(2013a)].
- 9) 이경하(2005:232)에서는 17세기 창원 황씨가 어머니의 언행록을 짓고 아들에게 묘지를 짓도록 했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이 언행록이 아마도 국문으로 저술되었으리라 추정하였다.
- 10) 언해자가 알려진 드문 사례로서, 이를 통해 언해 시기도 추정할 수 있다(필사 시기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선도행장』의 언해자가 효종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한다.

『정경부인희평윤씨행장』, 『태부인행장습유록』, 서포의 형수인 서원부부인 이씨의 행록인 『정경부인한산이시행록』,¹²⁾ 숙종 때 문신 閔鎭厚(1659~1720)의 부인 延安 李氏의 인품과 행적을 아들 翼洙, 遇洙 형제가 기록한 『貞敬夫人李氏行錄』,¹³⁾ 숙종·영조 때 문신 최규서의 부인 전주 이씨의 행록인 「증조비니부인행록」,¹⁴⁾ 영·정조 때의 문신 洪麟漢의 부인 平山 申氏의 家傳, 언행, 제문 등을 아들 洪樂遠이 편찬한 『선부인가전』,¹⁵⁾ 영조의 딸인 和柔翁主의 후손인 黃鍾林이 선대의 행장들을 모아 언해하여 편찬한 『永世寶藏』 등이 전한다. 이처럼 행장을 국문으로 언해한 것은 가문의 여성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언해본 행장은 『內訓』, 『小學』, 『列女傳』, 『女四書』 등과 같은 교훈서와 함께

- 11) 최강현(1996:151-160)에서 처음 소개한 자료인데, 앞부분이 유실되었으나 내용을 통해 인물과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씨가 1652년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원래 행장의 저술 시기는 17세기 중엽일 것인데, 현전 자료에 나타난 표기나 형태 등은 후기 근대국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행장의 언해가 늦게 이루어졌거나 또는 현전본의 필사 과정에서 번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12) 다만 이들 자료의 언해 및 필사 시기, 언해자와 필사자 등을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김만중의 어머니 해평 윤씨(1617~1689)의 행장은 본래 1690년에 저술되었으나 정확한 언해 시기는 알기 어려우며, (언해 시기는 한문본 저술 시기와 그리 멀지 않으리라 추정하더라도) 필사 시기는 이보다 훨씬 후대로 추정된다. 언해본 『윤시행장』은 여러 이본이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서포가문행장』에 영인된 필사본은 표기 법이나 음운 현상 등으로 보아 19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문에 명시된 편찬 시기는 ‘무오년’ 즉 1738년이고(이는 아마도 언해본의 저본인 한문본의 저술 시기일 것이다), 필사기는 “경자이월십육일”이라 되어 있어 필사 시기는 1780년 또는 1860년으로 추정된다.
- 14) 최강현(1996:161-171)에 따르면 이 글은 남편 최규서가 쓴 亡室行狀類에 속하는데, 후손이 이를 언해, 편찬하였기 때문에 제목이 ‘증조비니부인행록(曾祖妣李夫人行錄)’이 된 것이다.
- 15) 규장각 소장본인 『선부인가전』은 영·정조 때의 문신 洪麟漢(1722~1776)의 아들 洪樂遠이 돌아가신 어머니 平山 申氏(1723~1763)의 가문과 생전의 언행 등을 기록한 「선부인가전」, 「선부인언행별록」과 남편 및 여러 친인척들이 쓴 「제문」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선부인가전」에는 신씨의 인품, 덕행, 자녀 교육, 사람들의 평가 등이, 「선부인언행별록」에는 생전의 언행, 자녀에게 교훈하던 말, 임종 때의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문」에 홍낙원이 아버지 및 친인척들이 지은 한문 제문을 누이동생을 위해 언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언해 시기는 모친의 별세 후에서 그리 멀지 않은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다만 필사 시기는 “을희팔월십일일 필서 황시숙필”이란 필사기를 통해 신씨 사후의 ‘을해년’ 즉 1815년 또는 1875년으로 추정된다(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해제 참조).

조선시대에 여성 교육의 교재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주로 婦德이 강조된 여성 행장을 언해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나, 『선도형장』이나 『통무공형장』 등의 예에서 보듯 망자가 남성인 행장의 언해도 이루어졌는데, 가문의 역사, 선조들의 업적을 익히는 것 역시 사대부 여성을 위한 중요한 교육 내용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4.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구성과 내용의 특징

『선비정부인박시유스』는 다른 遺事들과 마찬가지로 ‘망자가 어릴 때부터 보인 덕성과 자질-결혼 이후 아내로, 며느리로 겸손과 정성을 다하여 섬긴 일-평생의 빼어난 인품과 언행, 높은 식견 등을 보여주는 일화-임종-남은 이들의 비탄, 망자의 덕을 다시 강조함’의 구성을 보인다.¹⁶⁾ 이때 어릴 때부터 결혼 이후, 그리고 평생에 걸쳐 보여준 인품과 덕행의 내용은 『內訓』이나 『小學』 등의 교훈서에서 여성의 도리로 가르치고 있는 항목들과 대개 일치한다. 예를 들어 『내훈』의 목록을 보면 ‘言行章, 孝親章, 昏禮章, 夫婦章, 母儀章, 敦睦章, 廉儉章’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언행을 삼가고 조심할 것, 부모와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것, 남편을 지성으로 섬기고 남녀의 서로 다른 분수를 엄격히 할 것, 자식을 교육함에 바르고 엄격히 할 것, 일가 형제와 친척들과 화목할 것, 재물을 탐하지 말고 검소할 것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구성과 내용도 대체로 이것과 일치하는데,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ㄱ-1ㄴ) 어릴 때부터 효성과 명민함이 드러남
- (1ㄴ-3ㄴ) 결혼 이후 집안일에 힘쓰며 시부모와 남편을 정성스럽게 섬김
- (3ㄴ-5ㄱ) 奉祭祀에 지극한 정성을 쏟음
- (5ㄴ-9ㄱ) 일가 친척을 두루 챙기고 화목을 위해 힘씀

16) 한문본인 『先妣遺事』에는 첫 장에 ‘遺事類次’라 하여 목차를 제시하였는데, 그 차례는 ‘總叙, 養尊姑, 事君子, 奉先祀, 敦家風, 誠子孫, 教婦女, 御婢僕, 待賓客, 操飭, 勤儉, 仁心, 微言’이다. 언해본에는 목차가 없다.

- (9ㄱ-27ㄱ) 아들에 대한 가르침(벼슬살이에 대한 근심과 경계, 겸손, 말을 삼갈 것, 학업 독려, 조급하지 말 것, 게으르지 말 것, 의복과 음식에 대한 경계 등)
- (27ㄱ-30ㄴ) 집안 부녀에 대한 가르침(투기와 사치를 금함, 유흥에 대한 경계 등)
- (30ㄴ-33ㄴ) 비복들을 은혜와 위엄으로 거느림
- (33ㄴ-35ㄱ) 接賓客에 정성을 다함
- (35ㄴ-38ㄴ) 내외 분수를 엄히 함
- (38ㄴ-43ㄴ) 평생 부지런히 女工에 힘씀, 검소함
- (43ㄴ-50ㄴ) 지극히 어진 성품, 높은 식견
- (50ㄴ-51ㄴ) 어머니의 말년(조정에서 전교를 내림)
- (51ㄴ-54ㄱ)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아들의 회한, 돌아가신 이후 조정의 특별한 대우¹⁷⁾
- (54ㄱ-55ㄴ) 이 글을 쓴 목적(어머님의 평생 덕행, 집안 며느리에게 경계)

이처럼 『선비정부인박시유스』에는 조선시대 여성 교훈서나 행장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孝, 烈, 男女有別, 奉祭祀, 接賓客, 女工’ 등 당대에 ‘婦德’으로 강조되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덕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일화나 평가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자질이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 집안 어른의 입을 빌어 “이 아이가 타일에 반드시 사람의 집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고 설명한다든가¹⁸⁾ 부녀자들 중에서 특별히 식견이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 집안사람들의 말을 빌어 “이러한 견식은 실로 여인들 가운데서 능히 도달할 바가 아니다”¹⁹⁾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다른 여성 행장류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17) “유지 너 굴으샤디 (중략) 전 부스는 다른 집과 다르니 각별히 그 길희 고조홀 줄노 희유허라 하시니 (중략) 덕음으로 고조호심은 갖흔 씨 여러 집의 잇지 아니흔 배라 늙흔 은수와 다른 통악이 오호 망극호도다.” [참고] 『承政院日記』 正祖 23년(1799) 1월 29일 “以慶尙假都事大丘判官洪景斗狀啓, 密陽府使尹光濬, 遭母喪, 金泉察訪鄭元善, 遭父喪事, 傳于李勉兢曰, 分付該曹, 與察訪之代, 口傳差代下送, 前府使則異於他家, 各別顧助其行事, 回諭.”

18) 이 아히 타일의 반드시 사람의 집을 창대홀 거시니 남즈 되지 못홈이 한이라 하시더라 <1ㄱ>

19) 니네 경삼이 미양 그 늙흔 소견 이시를 항복허더라 (중략) 이러흔 견식은 실노 규함 가온디 능히 니를 배 아니라 허더라 <48ㄴ-49ㄱ>

그러나 이 자료에는 박씨의 인품과 덕행을 형상화하기 위해 독특하고 개성적인 일화들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본문이 총 55장에 이르러 다른 행장류에 비해 긴 편인데²⁰⁾ 윤광호는 어머니의 덕행을 설명할 때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일화와 대화를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 글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1) 가. 심지어 여중이나 남중에 이르기까지 관대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이끌며 사나운 말로 함부로 꾸짖는 일이 없었으며, 때로 때리며 위세를 부린 일이 없었다.²¹⁾

나. 노복을 다스리시되 은혜와 위엄을 나란히 행하여, 다스릴 죄가 있으면 매질에 너그러움을 두지 않고, 줄 것이 있으면 나누기를 매우 고르게 하시니, 비록 느리고 게을러 영을 좇지 않는 자라도 문득 대부인 마누라 분부라 이르면 감히 어기지 못하니 대개 또한 감복하여 그런 것이다. (ㄱ)노비들의 의복과 음식을 반드시 당신의 소임으로 삼아 힘을 다해 도모하고 연세가 드신 후에도 또한 그러하시니 내가 일찍이 말리며 말하기를 “춘추가 이미 높고 살림살이를 말지 않고 계신데 오히려 이런 일에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힘을 허비하심이 또한 과하지 않으십니까?”하니,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상전이 만일 불쌍히 여겨 돌보지 아니하면 저희 무리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 또 상전된 자가 다만 제 몸의衣食만 생각하고 능히 아래에 미치지 못하면 어찌 奴主의 은정이 있겠느냐?”하셨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만년에 가계가 더욱 가난해져서 의복이 완전치 못하여도 만일 명주나 무명 등을 얻으면 반드시 고루 나누어 집안 사람들에게 주어서 비복에게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스스로 당신 몸에 신경을 써서 혹 옷감으로 당신 쓸 것을 짓지는 않으셨다. 만일 (비복들이) 입을 것이 남루함을 보면 비록 빗을 얻어서라도 반드시 옷을 지어 주어 겨울에 홉것이나 여름에 핫것을 입지 않게 하셨다. (ㄴ)집에 한 종이 있는데 어리석어 쓸데없고 오직 힘이 많아 능히 무거운 것을 질 수 있었는데, 먹는 밥의 양이 심히 많아 조석으로 칠 홉 밥으로도 늘 창자를 채우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양

20) 다른 언해본 행장과 비교해 보자면, 규장각 소장본인 『윤시행장』의 경우 합본된 '산디칠가, 관동별곡' 등을 제외한 '윤씨행장' 부분은 총 18장이고, 『선부인가전』에서 제문을 제외한 家傳과 言行錄 부분은 총 15장이다.

21) 이세백, 「先妣安東張氏行狀」[박석무 편역(1998:171)에서 재인용]. 이하에서 재인용한 한문 행장의 경우 분량의 제약 때문에 한문 원문은 따로 보이지 않았다.

을 더해서 한 되 밥을 주라 하시고 비록 양식이 떨어져도 덜지 않으시니 집안 사람들이 혹 그 쓸데없고 한갓 밥만 허비함을 말하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되 “저 사람이 시골 떠나와서 일하며 처자가 있지 않으니 조석 밥을 얻어 창자를 채우지 못하면 무슨 흥이 있어 가히 오래 견디 지내겠느냐? 비록 어리석지만 또한 능히 힘이 많아 무거운 것을 지니 가히 부릴 만함이 꽤 많고 간사한 놈보다 나오니 어찌 쓸데없다 하겠느냐?”하시더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종이 하루는 홀연 “내 신세가 속속들이 고약하도다!”하고 슬피 탄식하여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대부인 마누라님이 돌아가시니 누가 나를 염려하여 굶주리지 않게 하겠는가?”하였다.²²⁾

(1가)는 17세기에 정승을 지낸 이세백(1635~1703)이 쓴 어머니 안동 김씨(1614~1677)의 행장 일부이고, (1나)는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일부이다. 이 두 글은 모두 어머니가 노비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셨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22) 거상의 노복을 어거하시되 은혜와 위엄이 굽 흥하여 가히 다스릴 죄 이시면 밋질 요더 아니하고 가히 줄 거시 이시면 난호기를 심히 고로게 하시니 비록 완만하고 게얼너 녁을 좇지 아니하는 재라도 든득 대부인 마노라 분부라 니르면 감히 위월을 못하니 대개 쏘흔 감복하여 그러흔지라 (ㄱ)노비들의 의복 음식을 반드시 이편 소임으로 삼아 보아 힘을 다하여 뵈히고 독노 후의도 쏘흔 그러하시니 불췌 일즉 간하여 곶오더 춘취 임의 높고 가산을 넘치 아니하시니 오히려 이런 등스의 모습을 수글니하고 힘을 허비함미 쏘흔 과치 아니호오니잇가 더답혀샤 곶오더 상전이 만일 고흥을 아니하면 저희 물이 어느 곳의 의뢰호리오 쏘는 그 상전 된 재 다만 제 몸의 의식만 생각하고 능히 아리의 밋지 못하면 엇지 노췌의 은정이 이시리오 하시니 그러모로 선비 만니의 가게 더욱 가난하여 의상이 완던치 못호되 만일 명지 무명 부치를 어드면 반드시 고로로 난화 가등을 주며 뼈 비복 ㄴ지 밋고 원간 스스로 몸 우희 뉴의하며 혹 머물너 이편 쓰물 짓지 아니하고 만일 그 녁은 거시 남누흔를 보면 비록 빗돈을 어더도 반드시 위하여 지어 주어 하야곰 겨울의 훗거시며 여름의 핫것을 아니케 하시더라 (ㄴ)집의 흥 종이 이셔 농통하여 빨디업고 오직 힘이 만하 능히 뜨거오물 지고 밥양이 심히 커 도석 칠 흙 밥이 상히 창즈를 치오지 못호는지라 인하여 하야곰 더하여 흥 되 밥을 주라 하고 비록 양식 췌러지기를 다더라도 감호지 아니하시니 집사람이 혹시 그 빨디업고 흥갓 밥만 허비함을 말호대 선비 곶오더 제가 식골 췌나 와서 스역하고 처지 잇지 아니하니 도석밥을 쏘흔 어더 창즈를 치오지 못하면 무슨 흥황이 이셔 가히 오래 견디어 지내리오 이 비록 용하하나 쏘흔 능히 힘이 만하 뜨거오물 지니 그 가히 부림 되오미 크게 췌 만코 능간흔 늬이어서 나오니 엇지 빨디업다 니르리오 하시더니 밋 선비 하세호신 후의 그 종이 하로는 홀연이 슬피 탄식하여 곶오더 내 신세가 췌췌드리 괴악호도다 사롬이 그 연고를 뜨른디 더답하여 곶오더 대부인 마노라님이 하세하시니 누가 날을 긍념함미 이셔 가히 뼈 주리미 업스리오 호더라 <31ㄱ-33ㄱ>

(1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간략히 서술한 데 비해 (1나)에서는 관련된 일화를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여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1나)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비복들에게 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베풀었음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 뒤에 (ㄱ)노비들의 의복 음식을 손수 보살피시고, 심지어 당신의 옷도 완전하지 않은데 옷감을 얻으면 비복들까지 챙기셨던 일화, (ㄴ)어리석어 쓸데없고 밥만 많이 먹는다고 눈총을 받던 노비를 불쌍히 여겨 두둔하며 양식이 부족한 때라도 밥을 덜지 않았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어머니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선비정부인박시유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다.

『선비정부인박시유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친 내용들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물론 조선의 선비행장류에서 ‘아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모습은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어머니들은 아들이 어린 시절 학업에 힘쓰도록 독려하거나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고,²³⁾ 아들이 자라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신양명보다는 수양에 힘쓰도록 충고하거나,²⁴⁾ 관직에 나아간 이후에는 공정함을 강조하고 높은 지위를 오히려 경계하는 등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선비정부인박시유스』에서도 어머니 박씨가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학업이나 마음가짐, 일상생활 등에 대해 가르친 내용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 중 몇 가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3)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선비행장류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몇몇 사례를 들어 보면, 남구만의 어머니 안동 권씨는 아들의 공부를 독려하여 밤낮으로 손에 書算을 잡고 읽게 하고 간혹 글을 잘 외우지 못하면 매를 때려 피가 흘러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며, 육용정의 어머니 성주 이씨는 자식들이 학업에 태만하면 심지어 스스로를 때리며 경계하였다고 전하며, 홍석주의 어머니 영수함 서씨는 밤이면 아들이 낮에 읽은 책을 시험하고 전에 가르쳐 준 것을 복습시켰다고 한다. 또한 김만중의 어머니 해평 윤씨처럼 아들에게 직접 『小學』, 『史略』, 『唐詩』 등을 가르치거나, 이면백의 어머니처럼 『小學』, 『孟子』 등을 언해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한다[박석무 편역(1998), 김현미(2014)에서 재인용].

24) 김현미(2014:453-463)에서는 19세기 선비행장류에서 아들의 科擧와 관련해 입신양명보다는 수양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과거에 합격하여 명예를 성취함을 향한 바람이나 기쁨을 드러내는 현실적인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 (2) 가. 내가 어렸을 때에 혹 한가롭게 놓고 글을 안 읽어서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으면 어머니께서 탄식하여 말씀하시되 “옛말에 이르기를 글은 지극한 보배라, 읽은 자가 이 보배를 가지고 읽지 않는 자는 능히 가지지 못한다 하였는데 아이들이 글읽기를 싫어하는 것은 스스로 그 보배 가질 줄을 알지 못함이다. 가히 애달픔을 이기라.”²⁵⁾
- 나. 또 일찍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세상의 지극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만일 마음을 조심하면 필경 무사하고, 비록 지극히 쉬운 일이라도 만일 마음을 놓으면 반드시 염려가 미치지 못한 곳에 낭패가 많으니 세상의 무슨 일을 가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²⁶⁾
- 다. 또 일찍이 말씀하시되 “네가 ㄸ子의 마부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마부가 ㄸ子의 말을 모는 일을 맡아 의기양양해하였으니, ㄸ子의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것은 다들 알 만한데도 ㄸ子는 지위가 높을수록 기운을 더욱 낮추는데 마부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부끄러움을 깨달았다. 그러니 그 인품의 높고 낮음이 과연 어떠하냐?”²⁷⁾
- 라. 또 일찍이 나를 경계하셔서 말씀하시되 “명문가의 자제들이 스스로 높고 귀한 체하여 음식을 대하여 짐짓 먹기 어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실로 천박하다. 속담에 전하기를 宣祖 때 한 부마가 있어서 鰲城(이항복) 댁에 갔는데, 점심을 지어 주었으나 먹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돌솥에 지은 것이 아니면 먹지 못한다’하고 물리치더니, 임진년 난리에 임금께서 피란하셔서 義州에 이르러 온 조정이 다 굶주리다가 마침 보리밥을 얻어 부마를 주니 달게 먹거늘 오성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 밥이 돌솥에 지은 것인가?’하니 부마가 부끄러워하더라 하고 (중략) 이것이 비록 속설이나 사나이가 불가불 들어 알아 깊은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이다.”²⁸⁾

25) 불최 어려실 때에 혹시 한만이 놓고 글 아니 넘기로써 선군의 책교를 넘으면 선비 탄식하여 글오더 넷말의 니르기를 글은 지극한 보배라 넘는 재 이에 가지고 넘지 아니하는 자는 시러곰 가지지 못한다 하니 아희들이 글 넘기 슬희여하는 거손 이는 스스로 그 보배 가질 줄을 아지 못함이라 가히 인도로움을 이기라 <17ㄴ-18ㄱ>

26) 또 일즉 불초드려 니르샤 글오더 대저 세상의 비록 지극히 어려운 일이 이셔도 만일 마음을 조심하여 가면 필경 무사하고 비록 지극히 쉬운 일이라도 만일 마음을 노흐면 반드시 넘겨 가지 못한 짜의 낭패가 다단하니 세상의 모습 일 가히 방홀호리오 <15ㄱ-ㄴ>

27) 또 일즉 글오더 네 안즈의 어자를 듯지 못하였느냐 어재 그 안즈 어거히기로써 양양하니 안즈의 위 높고 금 만흔 줄을 가히 알지라 안즈는 위 더욱 높홀수록 기운이 더욱 느리는데 그 어자는 그 안희의 말을 듯고 비로소 붓그로움을 씨다르니 그 인품의 높고 느리미 과연 엇더호노 <16ㄱ>

28) 또 일즉 불초를 경계하샤 글오더 기환가의 조제들이 스스로 높고 귀한 체하여 그 음식상의 짐짓 먹기 어려워 하는 티도를 지오미 진실노 천호지라 속담의 던하기를 선묘 료의 호 부배 이셔 오성덕의 가니 점심을 지어 준대 먹지 아니하여 글오더 내 돌솥희 지은 배

위의 일화들에서 어머니 박씨는 아들이 어렸을 때 학업을 권면하는 것 외에도 마음가짐을 늘 조심할 것, 겸손할 것, 심지어 음식에 까다롭게 굴지 말 것 등 일상의 모든 면면에 충고와 가르침을 베푼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수단으로 옛 성현의 말씀이나 고사성어 외에 당시 세상에 널리 회자된 속담이나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동원되고 있어 흥미롭다.²⁹⁾

또한 윤광호는 여러 지역에 외임을 나가면서 다섯 차례나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이때마다 어머니 박씨는 아들의 관직 생활에 있어서도 ‘엄격한 스승’이자 ‘조력자’의 면모를 보였다.

(3) 가. 내가 경술년(1790)에 전주 판관으로 있다가 귀양 갔을 때 어머니께서 편지로 경계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처사를 경솔히 하여 죄를 입어 여기에 이르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러나 인간사의 어려움을 네가 이제야 맛보았으니 이런 때에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모든 일에 더욱 신중하여 후일에 보고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이다.”³⁰⁾

나. 내가 고을을 담당하게 되자 杖刑을 심하게 할까 경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죄 있는 자를 비록 마지못해 매질하나 만일 목숨이 어찌다 상하게 되면 심히 불행하니 부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하셨다. 혹시 官庭의 곤장 소리가 조금 오래감을 들으시면 반드시 작은 종이에 두어 자를 써서 그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아니하셔서 늘 말씀하시되 ‘혹시 소문이 규문 밖에 나가서 은혜가 官長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하셨다.³¹⁾

아니면 능히 먹지 못하노라 인하여 물니치더니 임진년 난니의 거개 파천하여 의취에 니르러 윈 도당이 다 주리다가 므츨 보리밥을 어더 뼈 부마를 준대 부매 달게 먹거늘 오성이 우서 곶오디 이 밥이 이 돌솥희 지은 배냐 하니 부매 난연하더라 호고 (중략) 이 비록 속설이나 사나히 불가블 드러 아라 뼈 깎흔 경계를 삼을지니라 <24ㄴ-25ㄱ>

29) 박씨의 가르침은 단지 아들의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집안 부녀들을 가르친 일화들도 등장한다.

30) 불취 경술의 완관으로써 귀향 가실 제 편지하여 경계하여 곶오디 네 처사의 경솔함으로 뼈 죄 넘어 여기 니르니 오히려 놀을 닦하리오 그러나 사림의 일이 간난함을 네 이제야 맛본지라 이런 때에 운확하지 말고 범스 상의 더욱 모름족이 신둥하여 뼈 후일의 보고 경계를 삼을지니라 <10ㄴ>

31) 불취 고을을 당할때 남장으로써 경계하샤 곶오디 죄 잇는 자를 비록 마지 못하여 치나 만일 인명이 엇지하여 상함을 날위면 불행하기 심하니 브디 맛당이 경계할지니라 하시고 혹시 관정의 장터 소리 조금 오래를 들르시면 반드시 자근 조회에 두어 즈를 써서 호

다. 내가 보은에서 원을 하었는데, 갑인년(1794)에 크게 흉년이 들어 선달부터 굶주린 백성을 구하였다. 비렁뱅이 오십여 인이 낮에는 마을에서 밥을 구하고 밤에는 빈 공터에서 모여 잤는데, 그때 내가 일 때문에 감영에 갔을 때 하루는 추위가 갑자기 심해져서 거의 숨이 부러질 지경이더니 밤삼경 즈음에 어머니께서 사람을 시켜 책실 사람에게 전갈하시기를 “오늘 밤 극한에 걸인이 냉지에 처하여 얼어죽을까 염려스러우니 空席 백여 장을 내어주어 땅에 펴고 몸을 가리게 함이 좋겠다.”하시니, 책실 사람이 즉시 吏房을 불러 대부인의 가르치심을 분부하고 공석을 흩어 주었다. 이튿날 아침에 걸인의 무리가 길에서 칭송하여 말하기를 “만일 대부인 마누라의 큰 은덕이 아니면 우리 무리가 어찌 오늘밤에 힘입어 살아났겠는가”하였다.³²⁾

라. 내가 보은에 있을 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관아에 앉아 있었는데, 한 촌부가 관아 뒤의 禁養處에서 풀을 베는 것을 보고 회초리를 쳐서 방면하였다. 그 후에 들으니 그 여인이 태가 동하여 병이 심하다 하니, 대개 태중에서 회초리를 매우 꺼리는데 애초에 깨닫고 살피지 못하였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마음에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셔서 즉시 관청을 시켜 넉넉히 쌀과 미역을 주어 음식을 먹고 원기를 보충하도록 하셨는데, 그 여인이 본디 빈궁한지라 밥과 국을 배불리 먹고 병이 나아 태가 평안하였다.³³⁾

여곰 그치게 하시고 사름으로 하여곰 그 무슨 말인 줄 알게 아니하시랴 밭양 굴오더 흑시 성분이 규문 밧기 나고 은혜 관장에게 도라가지 아닐가 저허호노라 하시더니 <137-1>

32) 불최 보은의 원 하니 갑인세에 크게 흉년 드러 납월노브터 기민을 싸 구급하니 비렁이 사름 오십여 구가 나준 읍등 마을에 밥을 구하고 밤은 빈 공터에 모히여 자니 그제에 불최 일을 인하여 순영의 가고 호로는 치위 줄연이 사오나와 거의 소음이 브리지더니 밤이 가히 삼경 즈음의 선비 사름 브려 책실 사름에게 전갈하시랴 굴오더 오늘밤 극한의 걸인이 냉지의 처허 재 어러 죽기 가히 넘너로오니 공석 퍽여 님을 내어 주어 하여곰 싸의 펴고 몸을 가리움을 엇게 하니 가하니라 책실 사름이 즉시 슈리를 불러 대부인의 가르치심을 분부하고 공석을 호터 주었더니 이튿날 아침의 걸인의 물이 도로의 칭송하여 굴오더 만일 대부인 마노라의 성허 덕덕이 아니면 우리 물이 엇지 싸 오늘밤의 힘입어 사라 나리오 하더라 <467-1>

33) 불최 보은의 이실 제 호로는 아춤의 니러나 아의 안잣더니 홀연이 호 촌네 풀을 아후 금양치의 비를 보고 약간 달초를 베퍼 노חת더니 그 후의 드르니 그 계집이 티가 동하여 병이 심타 하니 대개 티등의 달초의 밋이 써리는데 원간 써듯고 슬피지 못하였는지라 선비 밋음의 놀납기 이기지 못하시랴 즉시 관청으로 하여곰 넉넉히 쌀과 메육을 주어 하여곰 식보하게 하시더니 그 계집이 본디 빈궁한지라 밥과 국을 배불리 먹고 병이 나하 티가 평안하니라 <468-477>

(3가)에서 보이듯 어머니 박씨는 아들이 귀양을 가게 된 상황에서도 걱정이나 슬픔과 같은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처사를 잘못된 탓이니 남을 원망하지 말고 이를 거울삼아 후일에 경계를 삼으라는 엄정한 충고를 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아들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은 다른 선비행장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3나~라)와 같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아들의 공부에까지 개입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사례라 할 만하다. (3나)에서는 어머니가 형벌을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심지어 간혹 형벌이 지나치다 판단되면 직접 그만두도록 쪽지를 전하였다는 일화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바깥일’, 곧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였던 시대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³⁴⁾ 더구나 공무에 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윤광호는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여 소문이 나지 않게 하고, 아들에게 칭송이 돌아가도록 하였다’라는 언급을 덧붙여 이러한 혐의를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3다, 라)에서는 아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직접 책실 사람에게 명하여 결인을 구제하거나, 아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을 처벌하여 낙

34) 조선시대 선비행장류 중에 어머니가 밖의 일, 특히 정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덕행으로 제시한 사례를 몇 가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박석무 편역(1998)에서 인용].

가. 아버님께서 여러 고을의 현이나 부의 원님을 지내서 어머니를 따라가 지내셨다. 그러나 밖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신 적이 없었고 바깥의 말을 집안으로 들어오게도 않으시고 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하셨다. <정시한>

나. 우리 아버지 형제분께서 벼슬하실 때에도 또한 조정의 일은 물으시지도 않으셨고, 집안에 관보와 관리 입면의 통보장이 있어도 가져다가 보시지를 않으셨다. <김진규>

다. 불초가 임신현에 수령으로 나가자 어머니를 모시고 관청으로 갔었는데, 모든 정사의 잘하고 못함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간여한 적이 없으시면서 “나는 부녀자이다. 바깥 일이야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 이런 거야 대체로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법도이며 어머니께서도 그대로 준수하셨던 것이었다. <임성주>

라. 관청의 안집에 계신 지 여러 해였으나 유독 관청의 일에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고, 그 뒤에도 석주가 고을살이하던 곳에 계실 때에도 또한 그렇게 하셨으니, 비록 관청의 보좌역이나 심부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도 한마디 부탁하는 일이 없으시면서, “이런 것들도 공공의 직책인데 어떻게 부인이 관여할 바이겠는가?”라고 하셨다. <홍석주>

태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관청을 시켜 여인을 구호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무에 개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물론 어머니의 어진 성품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일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아들을 통해 공적 임무에 참여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³⁵⁾

또한 윤광호가 어머니와 더불어 時事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일화도 여럿 등장하는데, 몇 예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 가. 내가 외읍에 있어 날이 저물도록 관아에 앉아 저녁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밥 먹을 즈음에 혹시 그날 송사 결단함에 이르저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면, 어머니께서 늘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근래 백성의 풍속이 이러한 것은 경내와 향중에 선생과 어른의 가르침이 없어 사람들이 보고 감동함이 없기 때문이다.”하셨다.³⁶⁾

나. 내가 하루는 친척과 더불어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 한가롭게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주제가 關西 지방에서 세금으로 낼 좁쌀을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일에 이르렀다. 이때 조정에서 관서 지방에 쌀이 귀하고 값이 높기에 때를 타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근래 조정에서 멀리 생각함이 없어서 다만 돈이 급한 것만 알고 곡물이중한 것은 알지 못하여 한 지방의 쌀을 온통 없애니, 돈이란 것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추위도 입지 못하는 것이니 곡식이 없으면 비록 돈 천만 냥이 있어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데 만일 홍수나 가뭄이 나면 장차 어디로 손을 써 방비하고 막겠는가?”하니 사촌 이경삼이 늘 그 높은 소견에 탄복하였다.³⁷⁾

35)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세백(1635~1703)의 선비행장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갔을 때 혹 억울하게 죄를 입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용서해 줄 도리를 찾아 석방하도록 하여 남편의 미담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서 어머니의 어진 성품을 드러내는 일화로 제시하였다.

36) 불최 외읍의 이서 날이 맛도록 아의 좌하고 저녁을 넘혀 뵈셔 밥 먹을 즈음의 혹시 그날 송사 결단함에 이르저러한 가히흔 일 잇기로 말이 밋츠면 선비 밋양 탄식하샤 골오더 근니 백성의 풍속이 이러토흘은 이 그 혼 경내와 혼 향동의 선싱 장자의 가르침이 업서 사람이 보고 감동히미 업슨 고로다 <49>

37) 불최 호로는 친당으로 터부러 뵈셔 안자 한화하다가 우연이 관서 쇼미 작전하는 일의 밋츠니 췌에 묘당이 관서의 쌀 귀하고 감 높흐므로써 췌를 타 작전히미라 선비 드르시고 탄식하여 골오더 근니 묘당 우의 먼 넘네 업서 다만 전화의 급흠 되움만 알고 곡물의 등 혼 되움은 아지 못하여 윈 일도의 쌀을 무관이 업시 하니 돈은 이 주려도 가히 먹지 못

(4가)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저녁을 먹으며 그날의 송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4나)와 같이 아들, 조카와 더불어 당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여성의 생활 영역이 모름지기 ‘대문 안’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조선 후기 사회의 규율이며 당위였던 상황에서 여성이 ‘바깥일’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채롭다.³⁸⁾

지금껏 살펴보았듯 『선비정부인박시유스』에는 비록 극히 제한된 영역이나마 여성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일면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만 주목하여 이 자료 전반에 걸쳐 강조된 것이 전형적인 ‘婦德’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구성과 내용은 조선시대 여성 교훈서나 다른 여성 행장류와 공통되어, 당대 ‘婦德’의 필수 항목인 ‘事親, 奉祭祀, 接賓客, 敦睦, 女工, 勤儉’ 등을 포함하였고 각각의 덕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밤낮으로 떠를 끄르지 않고 간호하였다는가, 친척 조카들까지 자식처럼 자애를 다하여 길렀다는가, 늘 바느질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아 연로하신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등의 서술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조선 후기 先妣行狀類에 나타난 婦德의 전형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일화를 자세히 기술하여 어머니의 개성적인 모습, 때로는 제약을 넘어 보다

하고 치위도 가히 넘지 못흐는 거시니 곡식이 엷스면 비록 돈 천만 냥이 이셔도 뼈 흘 길이 엷는지라 만일 슈한 도적이 이시면 장초 어디로써 손을 붓쳐 방비호고 막으리오 니 테 경삼이 미양 그 높흔 소견 이시를 항복호더라 <48가-나>

38) 어머니가 아들과 적극적으로 조정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일화는 여성 행장류에서는 드물게 보이는데, 다음의 사례도 추가할 수 있다.

“어머님은 우리집으로 시집 오시기 전에 여러 형제들이 독서하는 것을 익숙히 듣고, 경전의 큰 뜻은 통달하였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구만은 조정의 벼슬 반열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政畵의 득실이나 인물들의 진퇴를 들으시고는, 사사roi 구만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어떤 일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구나. 그 점은 옳고 그 점은 그르며 거기에는 따르고 거기에는 반대해야 하니, 너는 삼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 이런 점이야말로 구만이 항상 조심스럽게 어머님의 뜻을 따랐고 낮이나 밤으로 주선하던 일이었다.”<남구만, 선비행장>[박석무 편역(1998)에서 재인용]

관직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일화는 밑줄 친 부분이 보여주듯 어머니의 충명함, 탁월한 식견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면모까지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특징과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국어사적 특징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언해가 이루어진 것은 한문본이 작성된 1800년 2월에서 머지않은 시기라 추정되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표기와 음운, 문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후기 근대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비정부인박시유스』는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필사한 것으로 보아 최초의 언해본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필사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필사 과정에서 최초 언해본과 다른 변개나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³⁹⁾ 이러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언해도 필사도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19세기 국어 자료로 이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문헌에 나타난 국어의 양상은 대체로 다른 후기 근대국어 문헌의 경우와 일치하므로 표기, 음운, 문법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표기의 특징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 있어서는 분철하는 경향이 강하지만(1ㄱ) 중철이나 연철의 예도 나타난다(1ㄱ'). 그에 비해 용언의 활용에서는 연철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1ㄴ) 분철의 예도 간혹 보인다(1ㄴ').

39) 자료를 보면 명백히 오자이거나 글자가 탈락한 경우가 보이는데, 이것이 처음 언해할 때부터의 실수인지 아니면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문헌에 나타난 여러 언어적 양상이 후기 근대국어 자료에 보이는 일반적인 '공존'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사자에 따른 차이인지(필사자의 방언적 배경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 등)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1) ㄱ. 하늘의, 사람의, 집을, 못흙이<1ㄱ>, 일을, 손의, 밤의<2ㄱ>
 ㄱ'. 창대홀 거시니<1ㄱ>, 합흙미, 붓그러오미<1ㄴ>, 나치, 오시<2ㄱ>
 ㄴ. 쓴혀저, 아라시고, 크매<1ㄱ>, 드러, 업스나, 만흐니<1ㄴ>
 ㄴ'. 잡아<2ㄱ>, 먹음어<3ㄴ>

한편 음절말 자음이 ‘ㄷ, ㅌ, ㅍ’ 등의 유기음인 경우는 연철 표기나 분철 표기는 잘 보이지 않고, (2ㄱ)과 같은 부분 중철 표기와 (2ㄴ)과 같은, 중철 표기의 일종인 재음소화 표기가 주로 나타난다.

- (2) ㄱ. 빗치<11ㄱ>, ㄹ튼<5ㄴ>, 굽피지<49ㄱ>, 말이 밋츨면<49ㄴ>
 ㄴ. 압희, 덩흐면<4ㄴ>, 김히<5ㄱ>, 쫓희<17ㄱ>, 돌쫓희<24ㄴ>, 꺾희<25ㄱ>, ㄹ흔<54ㄱ>

18세기 이후 근대국어 문헌에는 음절말의 ㄷ을 ㅌ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는데, 이 문헌 역시 마찬가지이다.

- (3) ㅅ<2ㄱ>, 손 ㄹ고, ㅃ드러, ㄷ눈<2ㄴ>, 밋고<15ㄱ>, 고을 ㅅ기<29ㄱ>, ㅃ즈온더<45ㄱ>

모음 사이의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하는 경향 역시 근대국어 표기법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⁴⁰⁾

- (4) 실노<1ㄴ>, 날노브터<2ㄱ>, ㄴ녀<2ㄴ>, ㅃ니고<3ㄴ>, 말을 말나<9ㄴ>, 올라와<11ㄴ>, 썰는 말슴<20ㄱ>, ㅃ블니<47ㄱ>, 올라<54ㄴ>

근대국어 문헌에서 된소리 표기는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사계 합용병서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다만 ‘ㅅ’의 된소리는 ‘ㅃ’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음). 그에 비해 각자병서를 사용한 예는 드물게 보일 뿐이다.⁴¹⁾ 이

40) 이와 별도로 “면니<8ㄴ>, 만 니<16ㄴ> 임진년 난니<24ㄴ>”와 같이 ‘ㄹㄹ’ 또는 ‘ㄴㄹ’을 ‘ㄴㄴ’으로 표기한 예도 보인다.

41) 다만 19세기 중반 이후의 천주교 문헌 등에서는 시종일관 각자병서를 사용한 사례도 있

자료 역시 된소리 표기에 주로 ㅅ계 합용병서를 사용하며(5ㄱ), 다만 ‘ㅅ’의 된소리는 ‘ㅆ’으로 표기한 예가 보인다(5ㄴ). 그리고 (5ㄷ)과 같이 각자병서의 예도 간혹 보인다.

- (5) ㄱ. 싸야진<5ㄱ>, 꽃훅<17ㄱ>, 써러지기룰<32ㄴ>, 써나와셔<32ㄴ>, 물 썩려<3ㄴ>, 썩지오기<16ㄴ>
 ㄴ. 발이<2ㄴ>, 빨니고<3ㄴ>, 빨터업고<32ㄱ>, 자리를 뼈흐러<34ㄴ>
 ㄷ. 뻘어나지<26ㄱ>, 이편 쓰물 짓지 아니호고<32ㄱ>, 쓸터업논<40ㄱ>

2) 음운의 특징

17세기 문헌에서부터 ㄷ구개음화의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실제 문헌상으로는 19세기까지도 ㄷ구개음화를 겪은 형태와 ㄷ구개음화 이전의 형태가 둘 다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문헌에서도 (6ㄱ)과 (6ㄱ')에서 보이듯 두 형태가 공존하는데, 특히 밑줄 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어휘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ㄷ구개음화에 있어서 한자어와 고유어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후기 근대국어에서 고유어는 대체로 ㄷ구개음화가 실현된 형태가 더 빈번히 나타나는 반면, 한자어는 (6ㄴ)과 (6ㄴ')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 ㄷ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예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한자어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 (6) ㄱ. 찌치시더니, 되지<1ㄱ>, 갈지라도<3ㄱ>, 엇지<5ㄴ>, 맞져<9ㄱ>, 쥬하호고<7ㄱ>, 밋치 싸져<30ㄱ>, 팔장지르코<28ㄱ>
 ㄱ'. 썰녀, 엇디<7ㄱ>, 어덜며<27ㄴ>, 폴당지르코<39ㄴ>, 도흔<43ㄱ>, 디나갈<45ㄴ>
 ㄴ. 시전(詩傳)의 <7ㄱ>
 ㄴ'. 형당(兄丈)<1ㄱ>, 투털(透徹)<1ㄴ>, 테(體)호여<15ㄴ>, 축턱(蹶蹶)호여<51ㄱ>, 가던(家傳)<54ㄴ>

18세기에는 어두에서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ㅣ’ 앞의 ㄴ이 탈락하는 예들이 등

다[이승희(2013b)].

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들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를 겪은 ㄴ, 즉 [n]을 어두에서 용인하지 않는 두음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본 문헌에서는 (7ㄱ)과 같이 ㄴ이 탈락한 예와 (7ㄴ)과 같이 ㄴ이 탈락하지 않은 예가 공존하고 있는데, 후자의 예가 더 많이 나타나 보수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7ㄷ)과 같이 본래 어두에 ㄴ을 갖지 않고 ‘이’로 시작하는 어휘인데 이를 ‘니’로 표기한, 일종의 ‘과도 교정’ 형태도 나타난다.

- (7) ㄱ. 소원하기 이르기 쉬오니<6ㄱ>, 의복의 이르러는<21ㄴ>, 죽임 입는<44ㄴ>
 ㄴ. 침식을 닛고<4ㄱ>, 죄넘어<10ㄴ>, 닛너<11ㄱ>, 닛기<17ㄴ>, 닛히리오, 녀계<27ㄱ>
 ㄷ. 닛흔(←일흔)<11ㄱ>, 닛컷는(←일컷는)<19ㄱ>, 니그리오(←이그리오)<26ㄱ>, 니바지헝기예(←이바지헝기예)<34ㄴ-35ㄱ>

모음 ‘·’가 어두음절에서 ‘ㅏ’로 변화한 예는 17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 변화가 표기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18, 19세기 문헌에는 ‘·’와 ‘ㅏ’의 표기가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문헌에서도 (8ㄱ)과 같이 여전히 ‘·’ 표기가 쓰인 예와 (8ㄴ)처럼 ‘·’ㅏ의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한 예가 나타나며, 심지어 (8ㄷ)처럼 음운 변화에 따라 ‘·’와 ‘ㅏ’의 소리가 구별되지 않게 됨에 따라 본래 ‘ㅏ’인 것을 ‘·’로 표기한 예도 보인다.

- (8) ㄱ. 헝며<1ㄱ>, 밧음<1ㄴ>, 헝로<3ㄴ>, 너리오더라<9ㄱ>, 싣야집<19ㄱ>, 목믈른<42ㄴ>
 ㄴ. 짜야집<5ㄱ>, 하믈며<5ㄴ>, 하여골<11ㄱ>, 마로<35ㄱ>, 싣이 즈조 마르논<50ㄴ>
 ㄷ. 밧치(←마치)<37ㄴ>, 입의 밧논(←맛논)<53ㄱ>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화하는 원순모음화는 18세기 문헌부터 종종 그 예가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까지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여전히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경우는 (9ㄱ)에서 보이듯 대부분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며 (9ㄴ)처럼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형태는 매우 드물게 보인다. 또한 (9ㄷ)과 같이 본래 ‘무’로 나타나야 할 것조차도 과도 교정에 의해 ‘므’로 표기된 예도 보인다.

- (9) ㄱ. 성품<1ㄱ>, 므룻<1ㄴ>, 물 썬려 빨니고<3ㄴ>, 하믈며<5ㄴ>, 물니치고<23ㄱ>, 므엿헨리오<23ㄴ>, 므거오믈<32ㄴ>, 블너<33ㄱ>, 베프시더니<33ㄴ>, 축블<35ㄴ>
 ㄴ. 더부러<53ㄴ>
 ㄷ. 완격의 므리(←무리)<22ㄴ>, 못즈온더(←못즈온디)<45ㄱ>, 북춘(←북춘)<50ㄴ>

3) 문법의 특징

전기 근대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주로 ‘ㅣ’계 하향모음 뒤에 쓰이다가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는 모든 모음 뒤에 쓰이는 것으로 확대되는데, 『선비정부인박시유스』에서는 (10ㄱ)과 같이 ‘가’의 쓰임이 확대된 양상을 보여주며, 간혹 (10ㄱ')과 같이 주격 조사 ‘ㅣ’와 ‘가’가 함께 쓰인 예들도 보인다. 그에 비해 (10ㄴ)과 같이 여전히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쓰인 예들도 상당수 보이는데 대체로 한자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 (10) ㄱ. 춘춍가, 게어롭 업기가, 넘녀가<4ㄴ>, 도리가<7ㄱ>, 낭패가<15ㄴ>, 사나히가<28ㄱ>, 부녀가<30ㄱ>, 신세가<33ㄱ>, 아비가<47ㄱ>, 인심과 세도가<49ㄱ>
 ㄱ'. 네가<11ㄱ>, 뉘가<33ㄱ>, 내가<38ㄴ>, 부네가<35ㄱ>, 셔시가<38ㄱ>
 ㄴ. 가당된 재, 블최<3ㄱ>, 숙피<5ㄴ>, 부네<30ㄱ>, 분취, 은취<30ㄴ>, 춘취<31ㄴ>, 처지<32ㄴ>, 지죄<38ㄱ>, 좌위<40ㄴ>

후기 중세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의/의’는 ‘아춤, 나쫘, 밤, 집, 앞, 웅, 집, 뉘, 城’ 등의 명사와만 결합하였으나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는 그러한 제약이 점차 사라져서 부사격 조사 ‘애/애/예’와 ‘의/의’가 수의적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 나아가 후기 근대국어 문헌 중에는 ‘애/애/예’보다는 ‘의/의’가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경우도 그러하다. 다만 ‘ㅣ’ 모음 또는 하향이중모음 뒤에서는 ‘예’가 쓰인 경우가 많다.

- (11) ㄱ. 하늘의 썰희 호고, 사름의 쓴혀져<1ㄱ>, 병의 걸니여<3ㄴ>, 뜻의 맞지 아
니호여<6ㄴ>, 빈의 올나<16ㄴ>, 손의 걸너 싸희 느리치고<23ㄴ>, 입의 조
계 호고, 눈의 빗나게 호여, 죄의 범호여<28ㄴ>, 문의 나면<30ㄱ>, 브린
후의<40ㄴ>
ㄴ. 엇던 때예, 후에야<4ㄱ>, 호시던 것과 긋기예<4ㄴ>, 단니예<6ㄴ>, 스이에
<12ㄴ>, 죄에 범호기를<28ㄴ>, 부지런호기예<38ㄴ>

18세기에 비교 구문에 조사 ‘보다가’가 쓰인 예가 등장하지만,⁴²⁾ 후기 근대국어 문헌에는 19세기까지도 비교 구문에 ‘에셔’가 쓰인 예가 많이 나타난다. 19세기 문헌인 『선비정부인박시유스』의 경우도 부사격 조사 ‘보다’가 쓰인 예는 보이지 않고 ‘에셔’가 쓰였음을 볼 수 있다.

- (12) 그 가히 부림 되오미 크게 외 만코 능간흔 높이여셔 나오니<32ㄴ>
상셔롭지 아니호미 이에셔 더 크미 업느니라<41ㄱ>
이논 진실노 텨자가 모든 사름이에셔 탁월호도다<49ㄴ>

후기 근대국어 문헌에는 간혹 개음절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를’ 대신 ‘을’이 결합한 예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있다.

- (13) 편지을<8ㄱ>, 여자을<16ㄱ>, 꾸미개을<28ㄴ>, 근노을<52ㄴ>, 상교을<53ㄴ>

흥중성체언의 소멸은 이미 15세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화된 것은 근대국어 시기의 일이다. 그러나 19세기까지도 흥중성체언과 흥이 탈락한 예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는데, 『선비정부인박시유스』에서도 (14ㄱ)과 같이 흥중성체언의 예가 (14ㄴ)의 흥중성이 탈락한 예와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14ㄷ)과 같이 본래 흥중성체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흥중성체언인 듯이 쓰인 예들도 보이는데, 이 역시 일종의 ‘과도 교정’ 형태라 생각된다.

42) 술을 경계흥이 쇼민보다가 비록 근절흥이 이시나 <계주윤음 21ㄴ>(1757)

- (14) ㄱ. 안희<9ㄴ>, 짜홀<12ㄱ>, 어리고 차근 나히<35ㄴ>, 우희<32ㄱ>, 나라희<48ㄴ>, 길희<53ㄴ>, 흐나홀<54ㄴ>
 ㄴ. 짜의<15ㄴ>, 길을<16ㄴ>, 쓸의<40ㄴ>
 ㄷ. 신히(←신이)<40ㄴ>, 병히(←병이) 나하<47ㄱ>

『선비정부인박시유스』에서는 특이한 종결형태인 ‘-로라’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 (15) 감히 종녀 저버리지 못호로라 히더라<8ㄱ>
 시러곰 종녀 줌즈코 잊지 못호로라<13ㄱ>
 대담하사 굴오디 므춤의 먹기 슬호여로라<45ㄱ>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라’는 모두 주어가 화자인 경우에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화자 표시의 선어말어미 ‘-오-’와 평서형 종결어미의 결합인 ‘-오라’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로라’ 등에서 보이는, 서술격 조사 뒤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쓰인 경우나, ‘못홀로다’ 등과 같이 ‘-리로다’가 축약된 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근대국어 문헌에는 화자 표시의 선어말어미인 ‘-오-’와 평서형 종결어미 ‘-라’가 축약된 특이한 종결형태로 ‘-뢰’가 등장하는데⁴³⁾ 이와 비교하면 ‘-로라’의 예는 상당히 드물었다. (15)의 예와 더불어 다른 필사본 자료를 검토하여 ‘-로라’의 예를 더 찾을 수 있다면, 근대국어 시기 화자 표시의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17, 18세기 문헌에 등장한 ‘-뢰’의 예 중 몇을 들어보이면 다음과 같다.

- [예] ㄱ. 내 歌호고 또 謠호뢰 <시경언해 5:15ㄴ>
 ㄴ. 내 모뭇 기우려 노픈 두들그로 나가뢰 <중간본 두시언해 1:42ㄴ>
 ㄷ. 總角 저귀 聰明호뭇 스랑호다뢰 <중간본 두시언해 24:62ㄱ>
 ㄹ. 내 高麗 王京으로서브터 오뢰 <노걸대언해 상:1ㄱ>
 ㅁ. 后ㅣ 더욱 병이 뿡호뢰 하사 김히 스스로 곰초와 <어제내훈 2:60ㄴ>

6. 결론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에서 ‘여성의 삶’, 특히나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행장류가 지닌 사료적 가치는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이들 자료가 형상화한 여성의 모습이 당대의 이념이나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일화나 사건 등을 통해 실체를 재구성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된다. 19세기 자료인 『선비정부인박시유스』는 이러한 여성 행장류 중에서도 특히 ‘여성 독자’를 위해 언해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후기 근대국어 문헌들과 같은 언어적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세기 국어사 연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글편지를 제외한 다른 필사본 자료들이 흔히 그러하듯, 필사 시기와 필사자가 분명하지 않고, 필사 과정에서 변개나 실수, 언해자와는 다른 필사자의 언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선비정부인박시유스, 19세기, 선비행장(先妣行狀), 언해본, 필사본

투고일(2016. 7. 28), 심사시작일(2016. 8. 10), 심사완료일(2016. 8. 17)

참고문헌

- 김 영(2014), 「한글필사본 충무공행장에 대하여: 새 자료 우리한글박물관 소장 『통무공행장』을 중심으로」, 『冽上古典研究』 40.
- 김현미(2014), 「19세기 선비행장(先妣行狀)류 글에 형상화된 어머니의 가르침」, 『한국고전연구』 29.
- 박석무 편역(1998),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현대실학사.
- 백두현(2004),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 송백헌(1982), 『西浦家門行狀』, 형설출판사.
- 이경하(2003),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 _____(2005),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여성 대상 傳狀文, 碑誌文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
- _____(2007), 「亡室行狀類 연구」, 『韓國文化』 40.
- 이승희(2013a),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 수용 양상」, 『韓國文化』 61.
- _____(2013b), 「『성경직희광익』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教會史研究』 41.
- 정하영(2006), 「숙종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한글 기록」, 『한국문화연구』 11.
- 최강현(1996), 『韓國文學의 考證的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Seonbijeongbuinbaksiyusa*(선비정부인박시유스) of
the collection in National Hangeul Museum

Yi Seunghee *

This paper aims to show the value of *Seonbijeongbuinbaksiyusa*(선비정부인박시유스), a new Hangeul manuscript of the collection in National Hangeul Museum. To do this, I analyzed this document in aspects of bibliography, construction and linguistic features. *Seonbijeongbuinbaksiyusa* comes under a category of *Seonbi-Haengjang*(先妣行狀), records of a deceased mother's life. This document is a Hangeul version of the original classical Chinese version which was written in 1800.

The women's *Haengjang*(行狀) is very important source to see women's personal lives in traditional society. Even though it tends to characterize an ideal woman with female virtues(婦德), you can also find individual features and information of women's live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records. *Seonbijeongbuinbaksiyusa* has special value because it shows not only typical expressions of female virtues, but also precise and concrete description of various individual anecdotes to characterize personality with independence. On aspect of diachronic study of Korean, this document shows linguistic features of late Modern Korean, but it should be cautious to use this as a linguistic source because this manuscript is not an original Hangeul version.

Key Words : *Seonbijeongbuinbaksiyusa*(선비정부인박시유스), the 19th century,
Seonbi-Haengjang(先妣行狀), translated document, manuscript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